

1. 발표문 도입부에서 말씀하신 번역(축자적 의미의) 뿐 아니라 독서라는 것 역시 늘 오독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특히 한 사회에서 ‘현상’으로 지칭될 만큼 어떤 독서의 회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는 우발성과 동시에 징후성을 동시에 늘 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금 환기합니다. 한국어 독자가 놓치는 것들이 무엇이고 다른 언어권 독자와 어떤 어긋남이 있을지 깊은 고민을 던져준 발표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82년생 김지영』(이하 ‘김지영’으로 표기)에 대한 분석을 비롯하여 최근 어떤 논의에서도 선생님의 발표문만큼 ‘위치성’에 대한 사유를 실감으로 체화하며 명쾌하게 분석한 논의가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전제되는)위치성의 문제의식과 관련했을 때 확실히 명쾌한 해석이어서 재미있었고 대체로 동의되는 견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발점에 놓인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 텍스트에 대한 매우 상이한 해석의 회로를 만든다는 것도 새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발표문 2절에서 ‘김지영’ 표지를 보고 단번에 떠오른 것이 호시노 도모유키 2010년 소설 『오레오레(俺俺)』였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이 소설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직결되는 흐름이 흥미로웠습니다. ‘김지영’ 책 표지의 비어있는 얼굴에서 신자유주의가 균질화한 세계, 보편의 착시 속에서 데스크게임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읽으신 부분은, 한국에서 이 소설이 일종의 임파워링의 매개로 이야기되어온 분위기에 다른 관점을 개입시켜 생각할 필요도 제기하기 때문에 특히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의 표지를 읽는 데에 일관되게 영감, 영향을 미친 것은 멕시코 사파티스타의 투쟁 방식, 그리고 그 전략이 이전 시대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 21세기 전후 대항지구화 운동의 방법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마르코스의 검은 복면으로 상징되는 대표(representation) 체제에 대한 거부에 공명하고 골몰했던 2천년대 한국의 운동(진영)담론,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어떤 변곡점처럼 등장한 검은마스크의 집회들, 그리고 실제 그 복잡한 의미나 논란은 차치하고 ‘얼굴성’을 표상으로 삼는 운동의 ‘방식’이 원리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에 대한 주목 등이 이 소설 현상에 대한 저의 관점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소설을 둘러싼 한국에서의 독해와는 꽤 다른 관점을 제시하신 발표문에 여러모로 저도 생각들을 확장할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속 데스크게임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읽어내신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 소설과 관련해서 꽤 중요하지만 별로 주목되지 않은 오늘날 출판시장-자기표현미디어-자본주의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야 할 필요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는 글에서 언급된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적 특징 이외에도, 이른바 포스트포디즘의 구조 속에서 계속 이행해왔고, 자본주의와 인간 사이의 관계도 이전 방식의 수직적 착취나 약탈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지영 현상의 중요한 촉매로서의 2010년대 이후 자본주의-자기표현미디어의 성격(단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의 데이터더미가 사용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그것을 다른 벡터로 재전유할 존재 역시 사용자라는 사실)이란 분명히 이 소설을 언급할 때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이 소설 표지(소설 현상을 포함)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이 데스크게임의 위태로움을 내재하고 있다는 방식으로만 ‘환원’되는 것은 아닐지, 혹은 미디

어-자본주의의 변화한 조건들이 다소 간과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령 이 현상 배후에 놓여 있을 미디어-자본주의는 과거(근대) 식의 출판시장(top-down)과 연동했을 균질화의 매개라기보다는 이제는 일종의 동기화(synchronization)의 메커니즘을 시야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데스크게임의 가능성보다 좀더 입체적 양상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또한 평소 선생님 글을 보면서 늘 흥미롭게 생각해온 것이기도 한데, 이번 토론 자리를 빌어 좀더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천년대 초반에 오카 마리가, 모로코의 한 사회학자의 자전적 픽션을 대상으로 쓴 글이 살짝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랍에서 태어난 식민지 무슬림 여성, 특히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 주변화된 노동 계급 여성들의 문제를 프랑스어로 써온 저자가 이 소설은 영어로 썼고, 거기에서 오카 마리는 이 세계 언어(사용자)들 사이에 개재해있는 역학을 분석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글을 이 사례와 유비시키는 것이 아닌데(실제 맥락이 상이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언어로 쓰는지, 그리고 저자가 누구를 그 작품의 독자로 상정하고, 누구를 향해 작품을 썼는지의 문제에 갖든 저자의 위치성과 그 역학’, 그리고 ‘글쓰기에 갖든 필자마다의 전략과 그 정치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궁극적으로 닿았으면 하는 지점, 혹은 (좀더 구체적으로 여쭙자면) 일본어 공간에서의 텍스트를(담론, 현상, 자료 포함) 일본어로 쓰고 그것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어 읽힌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여기고 계실지 그런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3. 마지막 4절에서 언급하신 『나도 시대의 일부입니다(わたしも時代のいちぶですー川崎桜本・ハルモニたちがつづった生活史)』 및 관련될 또다른 출판물이나 사례 등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가시화한 마이너리티의 자기서사, 당사자(?)서사 등에 대한 관심과 연결될 수 있을 지점이라고 여겨졌는데요. 혹시 좀더 소개해주실 출판물이나 사례 등이 있을지요. 그리고 더불어 이런 연결의 방식으로 마이너리티 연대를 사고하려 할 때에도 유의, 고려해야 한다고 여기시는 지점 등에 대해 좀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